1, 2, 3을 활용하여 더불어 사는 삶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 지에 대해 논술하시오. (‘주제어’)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서는 구성원 간 평등한 관계와 상호 간 감정적 유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완전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을 고려할 때 단지 이러한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만으로 실제 사회는 바뀌지 않는다. 더불어 사는 삶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윤리적 불완전함을 보완하고 공익을 실현하도록 하는 도덕 공동체가 요구된다.

1과 2는 사적 이득을 추구하는 개인과 공공의 이익이 불일치해 더불어 사는 삶이 좌절되는 사례들을 그린다. 1의 기업과 농장의 관계는 자본 격차로 인해 수직적 관계를 가지는데, 초국적 기업은 이러한 경제적 독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들을 착취한다. 노동자들에 대한 유대감을 전혀 갖지 못하는 모습이다. 2의 백성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선비가 되어 과거를 보고자 한다. 선비와 농민들 사이에 수직적 착취 관계가 형성되며 굳이 힘들여 농업에 종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은 구성원 간 평등한 관계와 유대감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2에서 확인했듯 인간은 사익을 계속 추구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와 충돌하는 ‘더불어 사는 삶’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주지하듯, 더불어 사는 삶을 이루기 위한 조건인 평등한 관계와 구성원 사이의 유대감을 온전히 갖추기 위해서는 결속된 공동체를 사회에 구현할 필요가 있다. 구성원들이 단지 개별자로서 사회 안에 존재할 경우 각자의 이익을 추구해 나타나는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공동체가 공익을 위해 사익의 실현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즉 더불어 사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반드시 정치적, 윤리적으로 결속되어 있어야 한다. 도덕 공동체는 구성원들에게 공평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과 함께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부여하는 화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만 항상 열려있는 공익과 사익 사이의 충돌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갈등이 생겨났을 때에도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45자)